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곤고한 자의 풍성한 복(II)

(시 34:1-22)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은 항상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때에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진정 행복자입니다.

곤고한 자가 곤고한 날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지만 환난까지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견지시는도다”(7절).

여기서 여호와와 천사는 제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8절).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잠 9:10). 지식은 많이 있으나 지혜가 없다면 있는 지식까지 무익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유산을 받은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명철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는 감정이나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하면서 아울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열거합니다.

(1) 사지에서 건짐을 받는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자들로 성곽을 삼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신비한 구원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전사의 출현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러한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9-10절)

사차처럼 빼앗고 탐하는 자들은 결국 궁핍하게 되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온갖 복을 받아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3) 장수하게 하신다(11-14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피하고 입술을 제어하여 거짓말을 아니 하는 자, 악행을 버리고 선행에 힘쓰며 평화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일을 보며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 여호와와 은택을 입는다(15-20절)

여호와는 행악자에게는 무서운 추격자이시지만 그의 눈은 의인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 옆에 가까이 계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곤고한 자를 보호하시되 한 마디의 빼도 꺾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환난을 당해도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5)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21-22절)

성경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대로 행악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뢰한 자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행실이며 그를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향하는 의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구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와 눈과 귀는 의인에게 향하며 그들의 절망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십니다(16절).

레위기에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했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치리 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돌보시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끌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년 섬김위원 및 동명이인 성도 명단 발표

-오늘 순례자간지로-

당회를 통과한 2007년 섬김위원 전원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2007년 섬김위원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12월 중 주일예배 시간에 임명을 받고 봉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동명이인 성도들로 인

해 착오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 성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명이인 성도들의 명단도 함께 오늘 순례자간지로 삽입하였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강해

20일(월)-25일(토)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내일부터 2006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불안한 국내정세, 북한의 핵문제 등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6일 동안 계속되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와 우리의 모든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부터 본당에서 열리며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칼빈주의 5대교리를 선포함으로 장로교회 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태신자 초청잔치 및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예배

태신자 초청잔치: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602호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

우리교회는 오늘 다양한 행사로 사명자대회와 추수감사절을 기념한다. 먼저 오늘은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던 태신자를 초청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태신자 초청잔치는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602호실에서 열린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는 2006년 추수감사절을 감사

하는 '추수감사찬양예배'로 드린다.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오정수 장로 지휘: 이영조 집사가 준비한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설립 15주년 및 추수감사절

26일(주일) 주일예배 시간 -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 - 임직식 · 파송식까지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는 날로 준비된다. 우리교회 설립 15주년을 감사하는 날이며, 올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다. 성도들은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성찬 예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의 정병으로 단련된 피택집사 58명과 피택권사 61명이 임직을 받게 된다. 또한 3명의 선교사 파송식도 갖는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2006년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1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필사1회> (2교구)김영호 집사 (12교구)허현숙 권사

<5독> (12교구)이동수 장로

<4독> (9교구)김은애 권사

<2독>

(12교구)주경자 권사 허현숙 권사 (13교구)김동진 집사

<1독>

(1교구)국산옥 권사 (4교구)김금준 집사

(6교구)김병용 집사 김희진 권사 한금희 권사

(7교구)정연택 권사 (8교구)김인식 권사

(9교구)김현주 집사 (10교구)김경희 권사

(12교구)김광신 장로 홍창배 집사

(13교구)김경희 성도 이난화 집사 이명옥 집사

이영임 집사 이정아 집사 장은영 집사

(14교구)정명숙 집사 최낙준 집사

통독자들은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하여 성경통독자답게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

2007년 교회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51:17, 롬 13:11)

2007년 교회 표어가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로 정해졌다.

2007년 교회의 모든 행사는 이 표어에 맞추어 진행된다.

1부 오르가니스트 교체

그동안 주일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던 강민정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박준호 선생을 청빙하기로 하였다.

박준호 선생 약력(1985년생)

-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영재 입학, 현재 4학년 재학중(동대학원 입학예정)
- The 3rd Jangcheon-Klais Organ Competition 최연소 참가 1위 입상
- 덴마크 - The 10th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 of Odense 초청 최연소 참가
- 오스트리아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 최연소 참가 및 1위 입상

필그림 선교여행 CBS방송

지난 10월30일(월)부터 11월11일(토)까지 진행된 필그림 선교여행을 CBS에서 녹화하여 12월1일(금) 오후10시에 방송하고, 12월 2일(토) 오후1시에 재방송을 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바란다.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0-21)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inthians 5:20-21 [NIV])

▶ 만민에게 전도- 필그림 성지순례 기행문

몸으로 읽은 성경

필그림 성지순례단

서울교회 예배당을 짓고 헌당을 하면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겠다고 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다.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라 한 믿음대로 88명의 필그림 비전 투어팀은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예정대로 4대 목표를 세우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2006년 10월 30일(월) 출발했다.

첫 기착지는 비 내리는 터키 제일의 도시 이스탄불이었다.

터키는 예전의 두 강인 히데켈과 유브라데의 발원지, 노아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밧단아람, 니므롯, 소아시아지방의 사도 바울의 선교지, 사도 요한의 일곱 교회 등 수다한 성경 지명을 찾을 수 있는 보고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스탄불(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가리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기독교 3대 역사도시인 이스탄불은 320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영토확장 정책에 의해 새 수도(비잔티움)를 정하고 이곳을 신로마(Nova Roma)라 했으나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로 불렀다.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라는 목표로 6세기 중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보다 더 아름다운 콘스탄티노플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404-415년 최초의 기독교 교회

로 지어진 소피아 성당(높이 56m, 17층 높이)은 기둥 없이 돔으로 건축된 것으로 금 160톤, 내부 벽면의 모자이크 성

화로 장식된 예배당으로, 건물을 지은 황제는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기었노라”며 탄성을 질렀다고 한다. 크리스소스톰이 감독으로 있었던 때(347-407년) 8,000명이 예배드리던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교 사원이 되어 버렸다. 터키는 크리스찬이 0.2%밖에 없는 이가뵈트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불쌍한 나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을 갖게 했다.

순례팀은 아시아와 유럽이 마주하고 있는 보스포리스 해협을 유람선을 타고 지나면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의 비전을 받던 때를 연상해 보았다.

배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비전 투어가 시작되었다.



갈릴리호수에서

‘구원을 등한히 말라’ (히2:3)는 이복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큰 도전을 받은 일행은 영적으로 캄캄해진 이스탄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해가 진 모슬렘의 도시를 바라보며 복음의 나팔을 부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도착한 일행은 죽음의 문화유산인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 전시장을 거쳐 헤롯의 길을 피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 피난 기념교회당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 홍해를 건너 마라 르비딤 시내광야를 지날 때 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도 이어졌고 시내산 기슭에 늦은 저녁여야 도착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모세의 지도력이 감동적으로 느껴졌다.

새벽2시, 완전무장을 한 순례팀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 등정에 올랐다.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과 손전등을 유일한 불빛삼아 해발 1,530m 지점에 위치한 St. Catherine수도원 앞에 집결하여 실제로 약750m정도의 높은 산, 즉 수도원에서 돌계단 3,700개를 밟고 올라가는 험난한 노정은 믿음 없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행로였다. 마지막 1/3은 가파른 돌계단 700개를 올라 정상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코스다.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마치 모세가 된 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절박한 사명감이 가슴을 찌렀다. 산 위의 울퉁불퉁한 바위를 마루삼고 여명의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떠오르는 태양에 비추인 붉은 색으로 변하는 첩첩이 놓인 돌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늘 속에 있는지 산중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동안엔 흘렀던 땀이 찬바람에 얼어붙는 느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감격이 오히려 열도 높은 은실에서 성령 사우나를 하는 듯 했다.

베두인의 천막에서 뜨거운 물 한 컵을 사서 컵라면을 먹은 성도들의 모습은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잔치를 연상케 했다. 이구동성으로 낮에 이 산을 올랐다면 지레 겁을 먹고 출발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모두들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3,000점 이상의 고대 성경 사본과 5,000권이상의 희귀 성경이 보관된 그리고 가장 권위있고 오래된 시내산 사본이 발견된 St. Catherine수도원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광야행진을 계속했다. 타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홍해의 물 속에 위치한 수족관을 둘러 바다 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에 또 한 번 찬탄의 소리를 질렀다.

순례의 길 4일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는 감람산에 올랐다. 겐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베데스다연못, 역시 클라이막스는 골고다였다. 빌라도의 재판석을 시작으로 비아돌로로사(Via Dolorosa) 수난의 길, 슬픔의 길 14곳을 순례할 때는 때마침 모슬렘의 안식일이어서 평소 복잡한 시장 골목길에 다른 순례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골고다 언덕길에 이 날은 서울교회가 전세를 낸 거리처럼 한산하기 까지 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쓰러진 곳에서 땅바닥에 무릎꿇고 엎드려 통성기도했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천히 주님 가신 길을 밟았다. 성묘교회(Holy Sepulchre)는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이 있던 곳에 세워진 교회다.

이번 순례길에는 수신기를 휴대하여 이복사님이 조용히 말씀을 해도 10m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까지 옆에서 하는 말소리처럼 들을 수 있었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노정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합창을 할 수 있었다. 오후 늦게 베들레헴까지 입성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특혜도 누렸다.

토요일엔 역사의 현장 유대광야와 맛사다와 엔게디 그리고 쿨란을 탐방하고 여리고를 우회하여 북쪽 갈릴리로 향하였다. 그날 밤 아름답고 장엄한 갈릴리 호수열 호텔에서 CBS 새롭게하소서 8,000회 기념 감사 촛불 예



시내산에서

배를 이구정 목사인도와 오정수 장로 기도도 드렸다.

이날 설교와 성찬식을 집례한 이종윤목사는 함께 참여한 약25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연합’ (고전10:16-17)이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한 몸 되는 성찬식을 집례했다.



베드로고기

11월 5일 주일 갈릴리 선상예배는 참여한 이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런 체험이었다. 이종윤 목사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마 8:23-27)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시고 CBS 이정식 사장, 최기준 이사장, 새롭게하소서 진행자 최일도 목사, 임상현 장로가 각각 순서를 맡았다. 특히 이번 순례팀은 찬양대를 구성하여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다. 호수를 가로 지른 배 위에서 마치 주님 모시고 함께 가던 제자들이 된 느낌을 받았다.



주일은 그 어느때보다 복된 주일이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 팔복산,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곳, 오병이어 기적의 광야, 가나, 나사렛, 그리고 사도들과 연관된 가이사라, 읍바, 인투최후 전쟁이 일어날 곳(아마겔돈 전쟁평야)등을 순례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종일 감격 속에 지냈다. 8일째 순례팀은 다시 이스탄불로 이동하고 이즈밀(서머나)을 거쳐 아이발락에서 1박한 후 사도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일곱교회를 순방했다. 각각 주시는 말씀이 놀라웠고 특히 우상의 도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의 웅장함에 놀랐으며 바울이 두 번씩이나 찾았고 디모데와 사도요한의 사역지였던, 그리고 431년 종교회의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승격하여 마리아 숭배의 터전이 되었던 곳에서 다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과 비전을 보았다. 온천지인 히에라 폴리스(파묵갈레)에 여정을 풀고 유황온천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호수섬에서 에게해 해협을 지나 피레우스항에 도착했다. 선박의 나라 그리스에서 본 삼성의 1만톤급 선박, 도로를 질주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 거리에 걸린 LG가전제품 광고물들은 우리를 신나게 했다. 고린도에서 다시 사도바울의 흔적을 밟고 다니면서, 재판받던 베마(Bemal)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드리며 우리도 복음위해 수난 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되기를 빌면서 아고라(옛 시장터)에서 찬송을 여러장 합창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아텐의 지성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아텐 사람 수보다 많았던 우상의 도시에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바울의 연설은 오늘날 변증학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항로로 이스탄불을 거쳐 서울로 가는 비행기

에 몸을 싣기까지 12박 13일 동안 10번의 짐을 썼다. 풀었다 했으니 나그네 인생임을 체험기에 충분했고, 지리공부 역사공부를 통해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 터키, 그리스, 그리고 영적 제왕의 나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케 되었으며 예수님과 사도바울, 주님의 제자들



들과 모세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그들을 닮아 보려고 몸부림친 순례자들은 큰 비전을 받게 되어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렸다. 필그림 비전 투어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서울교회성도님들과 참여한 순례팀 여러분 특히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가는 곳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종윤 목사님 그리고 갈릴리 촛불 예배와 선상예배를 녹화 방영해 주신 CBS TV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찬양-곡 해설

Gloria! Gloria! Gloria!

이영조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2006년의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찬양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Antonio Vivaldi의 <Gloria>를 준비하였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이 가을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찬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Antonio Vivaldi(1678~1741)는 우리에게 '사계'(四季)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23세의 이른 나이로 신부가 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성직자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교회음악을 작곡하여 후에 Bach와 Handel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바로크음악(17세기)의 대가입니다.

200여 년간 묻혀 있었던 이 곡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악보가 발견된 후 1939년 9월20일 Siena에서 초

연된 이래 교회음악의 진수로 사랑받는 곡입니다. 악곡은 힘찬 합창과 아름다운 여성중창과 독창, 그리고 2개 이상의 선율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한 대위법적 양식(Polyphonic style)과 소프라노 선율에 대해 다른 파트가 화성만을 지원하는 화성적 양식(Homophonic style)으로 곡의 특징을 이룹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번 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16일(목) 대입수능생을 위한 열린 기도회

동정

- 주간 식당 봉사: 권사회(11월19일) 빌립선교회(11월26일)
- 금주의 식사제공: 손태기 집사 박우옥 권사 가정 정창빈 집사 김숙영 집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설립 15주년,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넘치도록
2.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선교사 파송·피택자 임직식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2007년도 서리집사,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들 되도록
5.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